최승재 "옴부즈만 조직 재정비… 규제개선 전 과정 전문화"

中企 옴부즈만 취임 1주년 간담회

최 옴부즈만, 2500건 규제 애로 수렴
하반기 '종합 규제혁신 협의체' 가동
"'현장의 대변자'로서 정체성 강화"

18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전 과정을 전문화, 고도화하기위해 적극 나선다. 기관의 위상도 더욱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처·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규제혁신 협의체'를 새롭게 가동한다.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해 신속·정확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통해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옴부즈만 조직을 재정비해 체계화·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 "부서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마련해 규제 개선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직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펼친다.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신뢰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제21대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해 8월 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취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옴부즈만의 지위는 차관급이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결기관으로서 옴부즈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현장의 대변자'로서 정체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 1년 간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현장 방문 횟수만 84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35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특히 1년간 2500여 건의 규제 애로를 수렴하고 이 가운데 600여 건의 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외부 전문가, 기관 및 협단체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도 집중했다.

최 옴부즈만은 취임 이후 8명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새로 위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했다.

그는 "올해 3회의 옴부즈만위원회를 여는 등 정기·수시 개최를 통해 현안 대응 속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해 규제 관련 논의가 일회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 이슈 공유 및 공동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 협의회'를 발족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동화일렉트로, 글로벌 완성차기업 전해액 공급

전해액 개발·생산 역량 입증
계약 규모 등 세부사항 비공개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미국 테네시 생산기지 전경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동화기업 계열사인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친환경 자동차에 탑재할 전해액 공급사로 최종 선정됐다.

다만 고객사명과 계약 규모, 공급 차종 등 세부 사항은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18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친환경 자동차의 동력 구동 방식에 최적화한 전해액 개발 및 생산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 순수 전기차(BEV) 시장의 일시적 정체 속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친환경 자동차 전반으로 제품 공급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실적 개선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공급될 전해액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돼 현지에 있는 고객사의 공장에 납품될 예정이다. 테네시 생산기지는 올해 초 완공된 이후부터 가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미국 현지 배터리 및 완성차 기업과 도합 3500억 원 규모의 전해액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김재민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대표는 "당사가 보유한 전해액 분야 전반의 기술적 우위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글로벌 동향에 따른 신규 투자와 공급망 강화,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품군 구성으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점차 넓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엡손, 고속·고정밀 작업 특화 로봇 선봬

하이엔드 6축 로봇 'C-C 시리즈' 출시

(왼쪽부터) 포스센서가 장착된 C8 (암길이 900mm), C8/12 (암 길이 1400mm) 모델 . /한국엡손

한국엡손이 고속·고정밀 작업에 특화된 자동화 로봇 신제품을 선보였다.

엡손은 하이엔드 6축 로봇 'C-C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엡손 로봇의 C시리즈는 고속·고정밀 하이엔드 6축 로봇 라인업으로 이번에 출시한 C-C 시리즈는 안전성과 효율을 모두 향상시킨 C시리즈의 가장 최신 모델이다.

신제품 시리즈는 8kg과 12kg의 가반중량을 지원하며 암 길이는 900mm(8kg·12kg), 1400mm(12kg) 두가지 버전으로 출시돼 정밀 작업을 요하는 제조업 현장에 폭넓게 대응이 가능하다. 포스센서를 활용해 전자·전기 및 자동차 전장 분야의 조립, 이송, 디버링 등 고난도 자동화 공정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춰, 기술집약적 산업군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제품 시리즈에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된 변화는 유지보수 편의성이다. 배터리리스 모터 유닛을 적용해 평균 1년 6개월마다 필요했던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어져 다운타임을 줄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전작 대비 매니퓰레이터 상의 커넥터 수가 줄어 M/C 케이블 교체 작업도 한층 용이해졌다.

전작 대비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

신규 소프트웨어 Epson RC+8.0과 고성능 통합 컨트롤러 RC800-A와 대응됨에 따라 사이클 타임을 기존보다 단축시켰다. 또한 PL=d, 카테고리 3등급의 안전 기능 인증을 획득했으며 STO, SS1, Safety I/O와 같은 핵심 안전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무협, '키타 포스트' 위촉

한국무역협회(KITA)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현지 무역 전문가와 기업을 선발했다.

무협은 회원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륙별 주요 유망 도시에서 활동할 현지 무역 전문가 1명과 기업 5개사를 '키타 포스트'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키타 포스트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시장 상황 변화, 현지 규정 변경, 공급망 재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무협은 해외 지부·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 위촉된 현지 무역 전문가를 통해 ▲시장 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법인 설립 등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 기반 조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정희준 수습기자 nauta@

웅진프리드라이프, 문호상 신임 대표 취임

문 대표 "고객에 새로운 가치 제공"

웅진프리드라이프 문호상 신임 대표(**사진**)가 공식 취임했다.

18일 웅진프리드라이프에 따르면 문 신임 대표는 웅진프리드라이프에서 영업대표, 장례사업부문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과 마케팅·브랜딩 전문 역량을 쌓아왔다. 현장 중심의 세밀한 운영과 대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란 기대다.

문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상조 1위를 넘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객에게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신뢰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중장기 비전과 핵심 전략으로는 ▲국민의 평생 파트너로서 전국적 영업망 및 시장 점유율 확대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과 오프라인 인프라 확충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실천 ▲전문 인력 육성과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사랑과 존중의 문화를 통해 조직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폴스키센터, 韓 스타트업 지원 협약

글로벌 진출 전 과정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국 시카고대 산하 폴스키센터와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폴스키센터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진공은 지난 2022년 시카고대와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딥테크 분야 보육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현지 시장에서 사업 검증 등 스타트업의 초기 설립부터 상업화까지 글로벌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 멘토링, 연구실을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유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이번 협약은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딥테크 생태계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창업 기업이 국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